

국방일보-국방기술품질원 공동기획
세계 무기 동향

강력한 대공 방어체계인 PAC-3가 한층 더 진화했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PAC-3 미사일 방어체계의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발표했다. 미국은 물론 한국, 일본 등 주요 국가에서 조달계약을 맺은 PAC-3 체계는 유효요격거리와 비행 중 조종능력 등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전해졌다. 일본 육상자위대는 10년여 만에 처음으로 신형 소총과 권총을 도입할 예정이다. 육상자위대는 신형 소총·권총을 공개하면서 도입을 공식화했다. 특히 '타입-20'이라는 이름이 붙은 신형 소총은 수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 저항성을 높였다. 이는 중국 등과의 영토분쟁 과정에서 상륙작전을 수행하게 될 경우를 상정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베트남 육군도 최근 러시아에서 도입한 T-90S/SK 계열 전차 강화에 나섰다. 현지 언론에 공개된 영상에 따르면 T-90S/SK 전차에는 광범위한 종류의 대전차 유도무기를 격퇴할 수 있는 쉬토라-1 능동방어체계가 장착됐다. 베트남 육군은 이 전차로 앞서 사용하던 노후화된 전차를 대체하겠다는 구상이다.

맹수열 기자

미국 록히드마틴, '개량형 패트리엇' PAC-3 요격체계 시험 성공

미사일 SW·HW 구성품 성능개량 확인



록히드마틴사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

출처=thediplomat.com

미국 방산업체인 록히드마틴이 개량형 패트리엇인 PAC-3 미사일 방어체계에 대한 요격시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록히드마틴은 최근 미국 뉴멕시코 화이트 샌즈 미사일발사장에서 실시한 요격시험에서 PAC-3 MSE 요격체계가 전술탄도 미사일 표적을 성공적으로 탐지, 추적, 요격했다고 밝혔다.

록히드마틴은 공식 발표문에서 "이번 시험을 통해 미사일 소프트웨어·하드웨어 구성품의 성능개량을 확인했다"며 "이 구성품들은 현재와 미래에 확장되는 위협에 대해 미래 PAC-3 MSE 요격체계가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록히드마틴 미사일·화력통제 부문 브렌다 데이베슨 PAC-3 사업담당 부사장은 "록히드마틴은 잠재적인 위

협을 방어하기 위해 PAC-3 체계의 능력을 증대·확장하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연구하고 있다"면서 "이번 시험은 PAC-3 체계의 성능을 증대하려는 록히드마틴의 노력을 보여준 사례"라고 말했다.

대기권 지점 방어체계인 PAC-3 미사일은 단거리 전술탄도미사일, 순항미사일, 군용 항공기를 요격할 수 있다. 기존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체계와 달리 PAC-3 체계는 직격파괴 기술에 기반하고 있다. 특히 기존 패트리엇 체계는 표적을 파괴하기 위해 폭발 파편 탄두를 사용했지만, PAC-3부터는 요격 미사일의 운동에너지를 이용, 표적에 충격을 가해 파괴하는 방식을 차용했다.

특히 신형 모델인 PAC-3 MSE 미사일에는 이중 펄스 고체 로켓모터가 장착

돼 유효요격거리가 눈에 띄게 늘었다. 또 추력 작동장치 개량 및 더욱 큰 제어용 핀 날개를 사용, 비행 간 조종능력을 개선한 것으로 알려졌다.

PAC-3 MSE 미사일은 미국과 한국은 물론 카타르, 일본, 루마니아, 폴란드, 아랍에미리트(UAE), 스웨덴, 바레인, 독일 등 세계 여러 나라가 조달 계약을 체결했다. 록히드마틴에 따르면 최근 미국과 동맹국의 PAC-3 체계 수요가 크게 늘었다. 그 결과 록히드마틴은 지난 5월 PAC-3 체계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발표했다.

미 육군은 올해 초 PAC-3 MSE 요격체계와 관련 장비를 추가 조달하기 위해 록히드마틴과 60억7000만 달러 규모의 계약을 체결했다. 록히드마틴은 앞으로 3년 동안 미 육군에 체계를 납품할 계획이다.

일본 육상자위대, 신형 소총·권총 공개

'20식(式)' 'SFP9 9mm' 2022년 공식 운용

일본 육상자위대가 최근 신형 소총과 권총을 일반인들에게 공개했다. 육상자위대는 최근 일본 방위성이 도쿄에서 개최한 행사에서 '20식(式)'이라는 이름의 5.56mm 소총과 헤클러 앤 코흐의 SFP9 9mm 권총을 전시했다.

'20식(式)' 소총을 제작한 일본 호와기계는 원래 이 소총에 '호와 5.56mm 소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하지만 육상자위대는 신형 소총 3283정을 구매하기 위해 예산

을 배정한 시기가 2020회계연도였다는 점에 착안, 20식이라고 명명했다.

'20식(式)' 소총은 헤클러 앤 코흐의 HK-416 소총과 FN에르스탈의 SCAR-L 돌격소총 등 다른 후보군을 제치고 일본 육상자위대의 새로운 소총으로 선정됐다. 육상자위대는 2022년부터 이 신형 소총을 도입할 계획이다. 육상자위대는 이 소총이 어떤 성능을 갖추고 있는지 자세히 밝히지 않았지만 "구형 호와 '89식(式)'



일본 육상자위대가 사용할 신형 '20식(式)' 5.56mm 소총. 출처=janes.com

5.56mm 공격소총보다 더 견고하고 우수한 화력을 지니고 있다"는 정도까지는 소개했다. 이 소총은 길이 조절이 가능한 개머리판과 볼 받침이 특징이다. 특히 이 소총

은 수중 등 다양한 환경에서도 활용할 수 있는 높은 저항성을 구비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언론들은 20식 소총을 상륙작전에 사용할 경우 중국과 영토분쟁을 벌이고 있는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제도 등을 방어하는 데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육상자위대가 사용할 신형 권총인 SFP9 9mm는 조절이 가능한 손잡이가 특징이다. 육상자위대 대변인은 "이 권총은 현재 운용하고 있는 미네베아 P9 9mm 권총보다 더 다루기 쉽다"고 말했다. SFP9 9mm 권총 역시 '20식(式)' 소총과 함께 2022년 공식 운용에 들어갈 예정이다.

베트남 능동방호장비 장착한 T-90 계열 전차 영상 공개

광범위한 대전차 유도무기 격퇴 가능 설계

베트남 육군이 러시아에서 획득한 T-90S/SK 전차에 쉬토라-1 능동방호체계를 탑재했다.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영상에는 T-90SK 1대와 T-90S 전차 2대에 러시아에서 제작된 능동방호체계가 장착돼 있다.

영상 속에서 다른 전차·장갑차와 함께 전시된 T-90 계열 전차는 편제 화기도 달라져 있었다. 이 전차의 상단 마운트에는 기존 T-90 계열의 편제화기인 NSVT

12.7mm 중기관총이 아닌 Kord 12.7mm 중기관총이 설치돼 있다.

베트남은 러시아로부터 T-90S/SK 전차 64대를 도입했다. T-90S 전차는 수출 기본형이며 T-90SK는 지휘용 전차로 활용된다. 이 전차는 베트남 육군이 사용하던 노후화된 중국제 타입-59 전차와 성능개량이 어려운 러시아 T-54 전차를 대체할 예정이다. 계약금액은 밝혀지지 않았지만, 현지 언론은 약 2억5000만 달러 규모



현지 언론을 통해 공개된 베트남 육군의 T-90S/SK 전차. 출처=janes.com

로 예상하고 있다. 특히 이번 투자는 베트남 육군이 오랜만에 확보한 신형 주력전차 발주로 평가된다. 베트남은 지난 10여 년 동안 해·공군 현대화에 집중해왔다.

베트남의 T-90S/SK 전차가 장착한 쉬

토라-1 능동방어체계는 광범위한 종류의 대전차 유도무기를 격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이 체계는 포탑 둘레로 4개의 레이저 수신기를 배열, 반 능동형 레이저 유도 미사일 체계가 주로 사용하는 지시장치의 노출 특성을 탐지할 수 있다. 위협을 탐지하면 포탑이 해당 방향으로 자동 회전해 연막탄을 발사, 대전차 유도무기의 유도용 지시기능을 차단할 수 있다. 특히 쉬토라-1 체계는 미사일이 표적에 도달할 때까지 추적, 유도를 계속하는 적외선 비콘도 차단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자료 제공=기포원(글로벌디펜스뉴스)

■ 편집=조성욱 기자